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영탁

인구감소의 경제학

인구문제는 미래예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 실제로 인구는 미래를 이해하는데 있어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인구에 관한 한 통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인구규모 자체가 그 나라의 경제활동에 갈수록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인구와 질 높은 인적자원을 가진 인도가 미래에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얼마 후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월등하게 많은 인구에 근거하는 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가? 한국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은 그보다 앞서 2016년을 고비로 하여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미래는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출산율이 낮아 전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곧 앞으로 젊은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져 올 결과는? 다시 말해 인구가 줄어들면 그 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줄면 전체 구매력이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력의 감소는 생산 활동의 둔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한마디로 인구가 줄면 노동공급도 줄고 시장에서의 구매력도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인구감소는 경제의 양면 즉 수요와 공급, 모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둔화될 소지가 크다.

이런 말이 있다. '지진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개미가 달아나고, 인구가 줄어들기 10년 전부터 기업이 달아난다.' 인구감소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웃 일본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 초부터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문제는 잃어버린 10년이 벌써 잃어버린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발전을 견인하였던 경제가 어려워지자 일본사회 전체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와 일본은 다르다고 한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는가마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를 안심해도 좋다고까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면도 있다. 우리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곧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을 한국전쟁 이후 1955년으로 본다. 이때부터 베이비붐이 일어나 연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씩 증가되었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만 55세이다. 이제 곧 은퇴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 본격적인 은퇴는 이들이 만 60세가 되는 2015년경에 나타날 것이다. 이때가 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사람은 일생을 통틀어 볼 때 50세 전후에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다고 한다. 직장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수입도 많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큰 집에 살면서 소비지출도 커진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가계의 수입도 줄어들고 동시에 소비도 감소한다.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면서 독립하게 되고, 가구주도 일생의 절정기를 지난다. 그 이후 가구주의 연령이 60대로 넘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소비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실제로 60대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2%, 그리고 50대 가구의 6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양면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때는 모두가 부러워했고 우리도 어깨가 으쓱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달성하고 나서는 고민이 많다. 심지어 한국이 세계에서 인구 소멸 1호국이 된다고까지 얘기되고 있다. 다이내믹하고 별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해서 풀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웃 일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한국인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강지은

A형 간염 예방과 치료

최근 A형 간염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등 10년 만에 다시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린이는 감기처럼 쉽게 지나간다. 어른은 고열과 황달 증세가 나타나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치료가 되는 질환이다.

그러나 전격성 A형 간염 환자로 악화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예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격성 A형 간염이란 간세포가 급속히 파괴되면서 신부전과 뇌부종이 생겨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절반이 사망하는 질병이다.

그러면 A형 간염은 어떻게 발생되고 진단되며 치료와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A형 간염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처럼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 전염된다.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오염된 식수원이나 급식 등으로 인한 경우이다. 회식 자리에서 감염된 사람의 술잔을 돌릴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일단 A형 간염에 감염되면 5세 이하의 경우 50~90% 정도가 무증상으로 앓고 넘어간다. 어른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피로감, 무기력,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구토, 발열,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며 감기나 몸살, 장염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초기 증상이 있은 후에는 짙은 소변과 황달 등의 간염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간비대가 동반되어 복통이 있기도 한다.

이때 환자는 안정을 취해야 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이외 특별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안 되고 대부분의 환자는 몇 주 안에 회복된다. A형 간염의 진단은 항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IgM HAV)가 양성으로 나타나고 특징적인 임상 징후를 보인다면 확진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음식물을 85도로 1분간 끓이면 사멸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다.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쉽게 전파가 가능하므로 기저귀를 갈은 후,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A형 간염의 예방 접종은 위험국가로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 직업적으로 A형 간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람, 만성 간 질환 환자, 군인, 의료인 등 위험군에게 권장되고 있다.

소아는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학동기나 청소년기에 심한 급성 간염으로 발현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형 간염의 예방 접종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있으며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고 위험군과 소아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손 씻기와 위생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다.

A형 간염은 생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신종플루와 같이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드물지만 전격성 A형 간염으로 악화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감기와 같은 유사 증상이 나타나거나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A형 간염을 의심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시엘병원 내과 원장〉

기고

홍진태

새역사 여는 광주세계광엑스포

광산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광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03년 225조원에 달하며 국내시장은 그 중 5.2%인 12조원이었다. 이후 규모가 점점 커진 광산업 시장은 지난해 세계시장이 386조원, 국내시장이 39조원에 달했다.

시장이 이처럼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광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시에 한국광기술원을 설립하면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왔다. 특히 광주는 지난 2000년부터 광산업의 특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관련 업체가 346개나 들어서 있고 이들 업체들의 연 매출이 지난해 기준 1조6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제 광주의 광산업은 타 도시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한 지역전략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산업적인 성과를 도시의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광주의 또 다른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2일 개막되는 광주세계광엑스포가 바로 그것이다.

광엑스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육성해 온 광주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성공사례를 다른 도시들에 홍보하고, 광주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세계 3대 광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것이다. 또 광주를 '빛의 도시'로 브랜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도시마케팅 효과와 함께, '빛'을 이용한 도시디자인의 촉진 및 새로운 도시 상징 공간 창출 등의 도시개발 효과도 함께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과 함께 광엑스포에 거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을 수 없다. 광엑스포에 지난 10년간의 광주의 땀방울과 노력이 담긴 만큼 경제적, 산업적, 문화적으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득 안고 광엑스포 재단 관계자들은 광엑스포의 화려한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빛의 가능성을 가득 안고 우주를 담고 온 소유즈 우주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던 F-5가 광엑스포 행사장에 자리를 잡았다. 빛의 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빛과학체험관과 인간의 희로애락을 같이 한 조명의 역사를 한눈에 펼쳐놓을 필룩스 조명박물관, 미래의 그린에너지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여줄 태양관 전시장 등도 마지막 채비를 마치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민들과 광주의 빛 예술작가들이 함께 만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시민파빌리온도 다른 주제관 못지않게 의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며 광주를 빛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주제영상관 루미보울과 빛 음악분수와 함께 멋진 빛 축제도 해가 진 후 역사 깊은 광주의 거리와 건물들을 화려한 빛으로 물들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광주도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광산업 도시를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한다면 빛은 광주의 미래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재)광주세계光엑스포 사무총장〉

농촌지역 보육문제 심각… 대책마련 서둘러야

요즘 농촌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젊은층 농가들은 아이를 낳아도 보육시설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우리나라 농촌 전체 면(面)의 절반에 가까운 500여 면에 보육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지금 농촌에는 이주 여성가정의 아이들을 비롯한 조손 가정 아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500여 면 중 두세 곳을 묶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면 지역 농촌을 보육 특수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당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면 지역 보육시설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늘려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농촌 보육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농촌의 심각한 보육문제를 풀기 위한 중앙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잇따른 여학생 성폭행테러 경찰은 뭐하나

23일 오전 학교에 가던 여고생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여학생은 발견 당시 괴한이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정모씨는 "당시 이 여학생이 2층에서 얼굴과 머리 뒤쪽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사무실 입구 벽면과 바닥, 계단 곳곳에서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입구에는 가방과 책, 우산 등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꼭 한달 전, 아침 8시께 학원에 가던 여중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끌려 다니다 성폭행 직전 탈출한 사건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이 여고생이 괴한에게 당한 것도 등교시간인 오전 7시께이고, 장소 역시 골목길이란 점이다. 여중생은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여고생은 계림동 한 건물 옆 골목길을 지나다 끔찍한 일을 당했다.

여고생은 "학교에 가는 골목에서 20대 남성이 의자를 같이 들자고 해서 2층 계단까지 올라갔다가 순간 낌새가 이상해 뒤돌아섰는데 돌로 머리를 내리쳤고 비명을 지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도 여러 정황과 여고생의 진술에 비추어 성범죄를 노린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지난달 여중생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럼에도 한 달 사이 도심에서, 그것도 등교길에 여학생들이 잇따라 테러를 당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정부가 극약처방까지 내놓고 있는 판에 이런 일이 또 다시 터졌으니 경찰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다.

당장이라도 등·하교시간대에 골목길 등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는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범인 검거는 필수적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지역경제 견인 기대한다

기아자동차가 신차 '스포티지R' 발표회를 갖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올해 14만대의 스포티지R을 생산하고 2011년부터는 연간 24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가 기아차의 신차 스포티지R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광주2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효자 차종인 '쏘울'과 함께 스포티지R의 병행 생산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7년의 34만6천여대, 5조5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최근 200m 자동화 라인을 증설하면서 기존 42만대 생산 규모에서 연산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50만대 생산 규모는 기아차내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의 60만대 생산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광주공장이 기아차의 핵심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소비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산업도시'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광주 제조업 매출액의 26.3%(5조 1천억원)를 점하고 있으며 수출액 역시 지난해 광주시 전체 수출규모의 24.1%에 달했다. 기아차가 휘청대면 광주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연산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의 대표기업인 금호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서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기업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도민 역시 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無等鼓

전조(前兆)

1920년 미국 여행보험사의 직원 '허버트 하인리히'는 수많은 통계를 다루다가 하나의 흐름을 발견한다. 1건의 대형사고가 터지기에 앞서 29번의 소형사고가 발생하고, 소형사고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징후들이 300번이나 계속된다는 통계학적 패턴을 파악한 것이다.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다.

이 법칙에서 보듯 큰 사고는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경고성 전조(前兆)를 무시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삼풍백화점 붕괴, 남대문· 향일암 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일찍이 한비자도 한마디 했다. "천길 둑도 개미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척이나 되는 높은 집도 굴뚝 사이로 새는 연기로 인해 불타 없어진다." 전조를 살펴 재앙을 미리 막으라는 충고다.

여권 수뇌부가 설화(舌禍)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MBC사장 인사와 관련해 '큰 집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사장은 좌파 청소' 등의 실언으로 쫓기듯 물러나더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했다는 "좌파 주지를 강남 사찰에 둘 수는 없다"는 발언은 진위 논란에 휩싸여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현모양처' 발언을 해서 여성들의 공분을 샀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무식한 흑인'이라고 말했다가 인종 차별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죽 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역마다 다른 공천 규정을 원칙없이 적용하는 바람에 '반 MB연대'에 앞서 '반 민주당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야권연대 협상도 물 건너가고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마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현직 단체장이 늘고 있다.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정치권의 요즘 모습이다. 여야 모두 전조가 좋지 않다. 정당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나라모양이 어찌될지 걱정된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